

●연중 제 26주일 강론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3대가 한집에 살면서 한방에서 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식사 때 할아버지 자리는 유리가 달린 문 곁인데, 밥을 내다보시다가 밥을 얻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애, 어멈아. 손님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바로 숟가락을 놓고 동냥 그릇을 들고 온 이한테는 밥과 찬을 담아주었고, 빈손으로 온 이한테는 뒤편에 따로 상을 차려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무위당이었기에 나중에 이웃들이 그한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고 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와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한창 더운 대낮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세 나그네를 달려가 맞이한 아브라함에 비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한 세 나그네는 하느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에서 하느님 대신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말합니다. 부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난한 이의 이름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의 라자로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개개인의 이름으로 부르실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루카 1,53)라고 한 마리아의 노래가 이 이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부자, 도대체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그가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로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는데 즐겁게 사는 것이 잘못된 아닙니다. 그는 라자로를 미워하거나 학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부자의 잘못은 형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라자로를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만 부자는 죽어 저승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내가 좋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순전히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기본을 이룹니다. 물질적인 것 이외에도 내면의 자질이나 건강 등 타고난 것들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마태 24,45) 하듯, 가진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제때에 모든 이에게 고루 분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 배가 부르면 종의 배도 부르다.’는 옛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쿡 심은 데 쿡 나고 팔 심은 데 팔 나듯, 부자의 가족한테서 부자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장일순 선생의 가족한테서 장일순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조상, 곧 할아버지로 부르고 있지만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은 장일순 선생 같은 가족입니다. 율법과 예언서는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치 못한 몸(종기투성이)이었고,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란 굶주린 사람 라자로를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떠하였든 부자의 집 앞에 있는 라로는 일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사회의 구조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 쥔 쪽은 부자와 권력자입니다. 단지 부자라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청렴하지 못한 부자, 나누지 않는 부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7초에 한 명,

60억 세계 인구 중 30억이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도 환율처럼 1달러 대 1천 원, 1달러 대 3만 리라 하듯 그 값이 각각 다른 걸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3명만 죽는다고 해도 전세계가 들썩거리지만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천문학적 숫자가 아사 직전인데도 세계 언론은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씨앗이죠.’ 어찌먼! 아프가니스탄 농부들과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말을 한다. 굶주림 끝에 종자까지 다 먹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씨앗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야기인즉 작년에 한정된 구호 자금으로 한 마을은 씨를 배분하고 그 옆 마을은 주지 못했단다. 안타깝게 비가 오지 않아 파종한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했으나 씨를 나누어 준 마을 사람들은 씨를 심어놓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확기까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는데, 옆 마을은 아사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전세계는 남한 인구만큼인 4천2백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매일 1만5천 명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경우 태아도 감염되는데 이런 모자 감염은 임신 7개월에 한 번 억제 약을 복용하고 출산 후 3일 내에 아이에게 한 번만 보조제를 흘려주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약값은 단돈 4유로(6천원)인데 그것이 없어서 죄 없는 아기의 목숨이 무참히 꺼져간다고 합니다.”(「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중에서)

그렇습니다. 늘상 내 코가 석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눈 돌릴 겨를이 없다며 무관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비야 씨는 이 책에서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지만 생명의 반대 역시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

정 세라피아 수녀(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9월 순교 성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부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재에서 아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위대마리아 순교자여, 천상의 모후이신, 신자들과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 저희도 어둠의 세력아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사악한 하느님에게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보호하시며 아치 어둠 속에 있는 불의까지 날리 폐지도 록 빌어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복을 받으셨사오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교회를 이 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내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을 다시 열심케하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 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가게 하소서.
- 찬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소서 저희와 천지와 은인들께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신입 꾸르실리스따 환영 및 정기 울뜨레아 모임
오늘 미사후 성당에서 6명의 여성 새 꾸르실리스따를 맞이하여 활동 울뜨레아를 갖습니다. 선배 꾸르실리스따는 전원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바뇌기도회
10월 3일 오후 7:30 / 박순웅 형제집

◎ 1구역 구역모임
10월 7일 미사후 / 한택중 형제집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레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눴고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10월 2일(화) 오후 8시, 수호천사기념미사
▶10월 4일(목) 12시/8 ,아시시성프란치스코기념
▶10월 4일(목) 오후8시,아시시성프란치스코기념
▶10월 6일(토) 낮 12시, 성모신심미사

◎ 성모 신심미사
10월 6일 토요일 낮 12시 성모신심미사

◎ 성시간
10월 4일(목) 오후 8시 미사 및 성체헌시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피정 안내
장소 : 토론토 성 김안드레아 성당
일시 : 10월 13일(토)
강사 : 전달수(안토니오)신부
내용 : 10시미사로시작,
스카폴라 착복, 꽃봉헌, 로사리오기도,
신부님의 강의 : 영성생활이란 무엇인가?
성모신심의 근거, 성체신심

◎ 한 신자 한 단체 가입하기 운동
우리 본당에는 다섯 개의 레지오와 바뇌기도회, 성서 100주간, 울뜨레아, 성소후원회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아직 한단체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 신심을 위해서 신심활동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
살면서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없다지만 당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화내는 사람이라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피곤해질까?

여자들은 보통 화를 너무 참아서 병을 얻고, 남자들은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폭력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남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화'다. 화는 남의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다.

화를 다스릴 때마다 삶이 조금씩 즐거워진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 틱낫한 -

2007-39 2007. 9. 30.

연중 제 26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사전례

해설 | 이우원 차주 해설 김직현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너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해졌도다.
◎알렐루야

성가

입당	(13) 남을 그리나이다
봉헌	(221) 받아주소서
성체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퇴장	(408) 주의 영광

독서

9월 30일	이우원	이희진
10월 7일	김근효	김순희
10월 14일	박재영	박경미
10월 21일	한택중	한재희

봉헌

9월 30일	고덕근	고세형
10월 7일	이우원	이희진
10월 14일	김근효	김순희
10월 21일	박재영	박경미

복사

9월 30일	하람	현재
10월 7일	지홍	지현
10월 14일	원영	한힘
10월 21일	경은	현재

2007년 9월23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560.00
성전건립:	\$ 115.00

Total:	\$ 675.00
--------	-----------